

# 한국 교회와 성령 운동

이근삼

## 머리말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라고 한다.<sup>1)</sup>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 방언, 신유 등으로 교회는 자못 요란하다. 그런 것이 없이는 신자, 교회라 하기 어렵다고들 말하며 성령에 관한 책자들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우리들의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역사와는 무관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칼빈주의 교회의 안팎에 흔히 있는 소리이다.

1) 교회사의 발전 양상을 하나님의 삼위 일체적인 존재 양식에 비추어 본 사람은 요이퀸 프로리스이다.

즉 감리교회에서는 경험과 성결에 전통적으로 강조를 두고, 침례교회에서는 회심과 단순한 성경적 경건을 주장하고, 성결교, 또는 오순절 교파들에서는 성령의 황홀한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서 장로교와 개혁주의 교회들에서는 순수한 교리와 예절과 질서 있는 행동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뜨거운 경건, 전통적 열심, 자발적인 간증, 그리고 방언과 이적적 신유 등의 성령의 역사를 장로교나 개혁주의 교회들에서 보기 힘들다고 하는 말들인 것이다.

그러면 이런 말들은 과연 옳은 말인가? 거기에 잘못된 오해는 없는가?

개혁주의 전통에 있어서의 성령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칼빈의 성령론

개혁주의 교회나 딱딱한 장로교에 대한 비판은 불행히도 때로는 참되다는 것이다. 개혁주의 교회가, 교육을 많이 받고 잘 훈련된 목사가 교리적 설교를 강조하고 저희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리교나 침례교 또는 오순절과 등에서 가지는 뜨거운 열심과 자발성에 비해서는 비교적 냉담한 편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향은 신학적인 문제도 있다고 본다.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에서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의 강조만큼 강조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성경의 교리는 칼빈으로부터 시작하는 개혁주의 전통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칼빈으로 말하면 결코 일반 풍자들이 그려놓은 것처럼 사랑도 없고, 성령도 없는 그러한 교의학자는 아니었다. 그는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처럼 싹싹하지도 못했고, 실

제적이지도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따뜻하고 열심있는 경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모토(motto)는 ‘불붙는 심령’ 이었던 것이다.

칼빈은 사실 머리보다는 가슴(heart)에 속한 신학자였다. 가슴이라고 할 때 그것은 현대적 용어인 감정이나 애정의 좌소가 아니고, 인격의 실존적 핵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신앙을 이해할 때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라고 믿었다. (칼빈의 1538년판 교리문답; 기독교 강요II: 3:36 참조)

그리고 그의 신앙에 대한 공식적 정의를 보면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에 기초한 것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 되고 우리 심령에 인을 치신 것이다”(II:2:7)라고 하였다.

더욱 선명하게 말하기를 “신앙은 머리보다는 더욱 가슴에 속한 것이고, 인간 이해보다 차원높은 것이다.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고 지원받지 않고는 성령의 조명을 받을 만한 충분한 것이 못된다”(II:2:33)라고 말한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렀다. 이것을 위펠드 박사를 위시해서 존 맥카이 박사, 버나드 램 박사 등이 그렇게 말했고,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는 “성령의 교리는 칼빈으로부터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강조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의 결과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하였다. 신자의 생활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서 시작하여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진다(III:1:3,4). 뿐만 아니라 성령은 신자를 이 세상에서 보존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은 어디에나 계셔서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자라

게 하시고 활기를 주신다”(기독교강요 I:13-14). 세상의 모든 진·선·미—그것이 비록 이방인들과 무신론자의 것이라 할지라도—그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에게 돌려야 한다고 하였다. (II 2:12-20)

특히 칼빈의 성경의 본질과 권위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에 끼친 독자적인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였다.

칼빈에 의하면 기록된 성경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이 성령의 은밀한 역사와 증거가 없이는 능력이나 설득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I:7:4, 5; I:9:1-3)

신자의 생활에 돌아가서 칼빈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 1:3에서 말하기를, 중생(Regeneration)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믿음은 중생에서, 그리고 생의 쇄신과 다른 은사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며 신자의 주님과 신비적 연합을 말하는 아름다운 교리를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II:11:5)라고.

칼빈의 이런 신비적 연합 교리를 두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칼빈이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린다면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내재의 신학자(The Theologian of the Indwelling Christ)라고 불릴 수 있다”고 하였다. (Smedes, All Things p.171)

그것뿐만 아니라 칼빈은 웨슬레나 오순절과 사람들 못지않게 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 루터는 그의 신학적 강조점을 두고 말한다면 ‘칭의의 신학자’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칼빈은 ‘성화의 신학자’라는 명칭이 붙을 만하다. 칼빈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한 적이 많지만 이 사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강요」 제3권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길’에서는 성령론에 관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불행히도 개혁주의 교회들이 아직도 이것들을 그대로 발견하

지 못했던 것이라고 Hendrikus Berkhof는 말한다. (Doctrines of the Holy Spirit, p.22)

더우기 교회론에 있어서 칼빈은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칼빈은 초대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가 말한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아버지인 그들에게 교회는 또한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주저없이 사용하였다(IV:1:1)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신자들의 사랑과 성령으로 연합된 단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 된 신자들 간에 동적인 상호관계를 가진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이다. 칼빈의 교회관은 한 마디로 성령이 지배하시는 영역으로서 ‘성령왕국’(Pneumatocracy)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칼빈의 성령론에 보면 성령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세레나 성찬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면 언제나 칼빈은 성령을 언급한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며 성례의 뜻을 주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성례는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다. (IV:14:18 참조)

이상은 칼빈의 성령론을 요약한 것뿐이나 이것에서 우리는 칼빈이 결코 성령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2. 칼빈 이후의 성령론

그런데 칼빈의 후계자들은 어떠한가? 칼빈의 이 아름다운 성령론이 왜 후대에는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는가? 17세기 정통주의 시기에 어느 정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후의 경건주의 반발이 있

었으나 칼빈이 가졌던 것에 미치지 못했다. 그후 18~19세기에는 자유주의가 일어나서 ‘영’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지만 성령의 성경적 이해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화란에서는 신생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과 성화를 강조하는 경험 신학이 발달하였다. (Ernest Stoeffler, The Rise of Evangelical Pietism, Leiden 참조)

이 운동에서 영향을 받아 후레링 하우스(Frelinghuysen, 1691-1747년)이란 첫 번째 대부흥사가 미국에서 나타난 일이 있다. 그후에 요나단 에드워드, 조지 윌펠드 등 대부흥사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다 칼빈주의자들이면서도 카리스마적인 인사들이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장로교 청교도들의 목사들과 신학자들 가운데 성령의 인격과 역사에 관한 저서들을 내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제임스 부카난의 「성령의 직분과 사역」(1843년), 옥타비우스 윈스로우의 「성령의 사역」(1840년), 존 오웬의 「성령의 3부작」(1674, 1682, 1693년의 것을 재판한 것)이 있다.

현대에 와서 화란 신학자들은 성령의 교리에 특별한 관심과 흥미를 보이고 있다. 카이퍼의 대작 「성령의 역사」는 이 분야에 있어서 고전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1888년에 출판되어 1900년에는 미국에서 영문판으로 출판되었다. 화란 신학자들이 보여준 성령에 대한 관심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들 중에는 헨드릭 벨코프, 노트만즈, 반 롤러 등이 있다.

미국 장로교 계통에서 주목할 만한 성령론이 있는데 그것은 조지 헨드리의 「기독교 신학의 성령」(George S. Hendry, The Holy Spirit in Christian Theology)과 아놀드 콕의 「인간의 영과 성령」(Arnold Come, Human Spirit and Holy Spirit)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교회나 장로교의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특기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비판은 아마 성령의 역사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온 것은 아닌가 싶다.

### 3. 한국 교회와 오순절 운동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성령이 지배하시는 '성령 왕국'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오순절파의 영향을 받은 무리가 많아서 '성령 세례'를 특별히 강조하되 그것은 곧 '성령 충만'이라고 하며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오순절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방언'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방언을 해야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되고 방언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자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느라고 이상한 작태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실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과 성령의 역사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1) 오순절파의 주장

오순절파에서는 현 교회를 향하여 능력을 상실했다면서 그 이유로 사도행전의 교회와 현실 교회와의 차이를 들고 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성령을 강조하고 경험한 데 반해 현실 교회는 성령을 등한시하며 교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은 사도적 능력의 근원은 성령 안에서의 세례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에 있으며 이것은 각 기독교자가 가져야 할 경험이라고 한다. 이 오순절파 운동은 사도적 기독교의 동시성을 소원한다. 즉 신약 성경은 그 당시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 재림 시까지 모든 세대에 일어날 일들의 청사진인 바 방언, 예언, 신유, 이적, 환상 등 신약에 기록된 신령한 일들은 현대 신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경험하는 성령을 강조하는 오순절파 운동은 이미 세계적으로 1000만 이상의 교인을 확보하고 있는데 라틴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는 로마교를 제외하고 최대의 교세를 떨치고 있다. 지난 1936년부터 1956년 사이에 교회수는 407%, 교인수는 582%나 증가한 사실만 보아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교적 성공은 능력의 근원인 성령의 세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오순절파 운동은 16세기 종교 개혁이나 18세기 영국 부흥 운동 이상으로 제1세기 사도적 운동의 재현이라고까지 자부하고 있다. 오순절파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더불어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를 오순절파가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① 성령 세례는 중생과 다르며 중생 후에 오는 사건이고 ② 방언하는 이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되고 ③ 이것은 열심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순절파의 주장은 사도행전을 주로 한 것인데 2:1-4, 2:38, 8:4-25, 9:1-19, 10:46, 19:1-7, 마가복음 1:9에서 중생 후에 오는 경험으로서 성령 세례 교리의 기본을 얻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바로 연구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1, 2을 사도행전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시작할 때에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했다.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① 사도행전이 예수의 시작하신 일의 계속임을 말하고 ② 선교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부활 후의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성령에 관계된 구절들의 뜻은 예수님 자신이 역사 속에 성령의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사실이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아주 인상깊게 소개하면서 연결시키기를 원했던 것이다.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1:4,5), 또 120문도에게 어떤 인간적 자격에 따르거나 아무런 예외없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을 뿐이었다. (2:1-4)

사도행전 2:1-4의 내용에 성령이 “홀연히 하늘로부터…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홀연히 하늘로부터”는 인간의 노력이나 심적 계재를 불허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저희 앉은 온 집에”(2:2)를 보아서 제자들의 성령받은 조건으로서 특별한 조건이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오직 오순절 사건에만 있고 사도행전 10:46과 19:6에 2차 ‘방언’이란 말이 있으나 거기에는 ‘다른’이란 말은 없다. 또 거기에 ‘다른 방언’으로 말함을 요구한 사람도 없었다. 오순절 그때만 이적적으로 주어질 방언으로 복음을 듣는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오순절에 동반했던 대부분의 현상들이 오순절 후에는 없어졌다.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에 관계된 주요 구절들에서 특히 강조된 한 가지 불변한 것은 근본적인 것,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 곧 선물이라는 것이다. 선물 또는 은사이지 사도행전 2:8,10,19 등에 보면 제자들이나 신자들 편에서 요구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이 오순절파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성경적으로 아주 다른 점인 것이다.

## (2) 성령을 받을 조건

성령을 받을 조건으로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요한복음 7:37-39까지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기록하고 있다. 요엘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은 오순절에 그대로 성취되었다. 본문에서 우리가 알 것은 성령이 그 전에는 교회에 계시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충만함으로 오실 것이란 사실이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며 유일하고도 불반복적인 사건이다. 또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성령 세례는 단번의 역사적 구원 사건이 아니라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구원받게 하는 성령이다. 그러나 오순절파는 자기 힘으로 죄를 벗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청결케 하시는 힘을 입어 성령의 내재하심을 받는다고 한다. 사죄의 은혜를 기독교 신앙 생활의 중심으로 생각지 않는 것이 바로 오순절파의 잘못이다.

## (3) 성령을 받는 방편

성령을 받는 방편으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메시지뿐이다(갈 3:1-5; 살전 1:4,5; 2:13; 살후 2:13,14; 고전 2:4,5; 고후 3:3-6; 엡 6:17; 벧전 1:2; 요 6:63; 20:22,23). 그러나 오순절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 믿음 외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조건은 복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충만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충만한 복음’(full gospel)이란 말을 잘 쓴다. 그들에게는 복음은 시

초에는 충족하나 신앙 생활을 계속하는 데는 불충분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성령을 처음에는 가져다 주지만 충만히는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복음만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특별한 인간의 노력, 경건이 성령 충만함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 (4) 성령을 받은 증거

신약 성경은 성령을 받은 증거로 믿음과 회개를 들고 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신앙이며, 소망을 가지는 신앙이며, 사랑하는 힘을 가진 신앙이다.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다. 그런데 오순절파에서는 성령받은 증거가 방언에 있다고 한다. 방언을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신약에서는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 생활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증거인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사를 위해서 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충족하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타도하는 것이 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갈 5:9). 적은 - “보다 더”(a little more)가 복음 전체를 파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더우기 신약 성경은 이것을 전적으로 거부한다.

### 4.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신오순절파, 또는 카리스마 운동

프링글리, 칼빈, 존 낙스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의 은사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저들은 ‘특별 은사’(extraordinary gifts)-예언, 병고침, 방언 등은 임시적이었고 이제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현대에 와서는 사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은사들은 중단되었다고 하는 개념이 정통적인 장로교와 개혁주의 교회에서 교리로 채용되게 된 것이다.

워필드 박사는 이적과 기사가 사도들로서 끝났다고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 워필드 박사는 1918년에 「Counterfeit Miracles」(가짜 이적)를 출간하고 재판을 낼 때는 「이적; 어제와 오늘, 진짜와 가짜」라고 책명을 바꾸어 출판했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바는 사도 시대의 교회는 이적 역사의 교회로서 이적적 성령의 은사(Charismata)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사도적 교회와 함께 지나갔어야만 했던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오늘날 장로교회와 개혁주의 교회에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칼빈신학교의 명예 교수인 후크마(A. H. Hoekema),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약교수 개핀(R. Gaffin)은 이 교리를 지지하고 있다.

후크마 교수는 주장하기를, 1800년 간의 사실상의 침묵 뒤에 질풍처럼 몰아쳐 온 근대의 방언 문제에 대한 설명은 심리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의 방언은 대부분이 성령으로 직접 영감되었거나 마귀로 인하여 직접 야기된 것이 아니라 다만 심리적으로 야기된 인간적인 반응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개핀 교수의 이론은 후크마 교수보다 더 성경적으로 설명되었다고 하나 그의 결론은 기본적으로 같다고 할 것이다. “방언은 예언과 함께 교회 생활에 몰려갔고 다른 기본적 은사들도 교회에서 사도적 과 함께 묶여 있다.”(Perspective, p.102)

위의 두 교수는 워필드 박사의 주장에 따라 사도들과 함께 했던 특별 이적적 은사들은 사도들과 함께 종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견해는 소수적 견해인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날 여러 교파의 신학자들은 방언, 예언, 신유는 심리학적으로 설명

할 수 있다고 믿거나 마귀의 역사라고까지 한다.

이와는 다르게 약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개혁주의와 장로교회의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오순절파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점점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별히 근대의 카리스마 운동 또는 신오순절파 운동을 그렇게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 유니온 신학교 교장이었던 신신학 장로교인 반 듀젠(Henry Van Dusen)은 자기가 카리빈 군도를 여행하면서 8,500,000명의 오순절 교도들의 활기를 보고 하나의 새로운 종교개혁, 새로운 강력한 기독교의 제 3세력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교학자인 뉴비긴(L. Newbigin)은 오순절파 운동의 중요성과 공헌을 인정한다고 일찌기 말한 바도 있다. 뿐만 아니라 화란 개혁파 신학자 벌카우어(G.C. Berkauwer)는 이적이 오늘 날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난다는 신학적 이유에 관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다음과같이 말한다.

“성경의 이적이 하나님의 구원적 활동과 떠날 수 없이 관련된다고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소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적이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결정주의에 사로잡혀서 생각하는 것인가를 스스로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The Providence of God, pp. 238, 242)

역시 화란의 신학자 벌코프(Hendrikus Berkhof)는 성령론이 조 직신학에서 등한시된 부분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성령 운동의 역사가 몬타니우스로부터 시작해서 16세기 재세례파와 퀘이커 교도, 그리고 20세기 초의 오순절파에 이르기까지 좋지 못한 경험을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열심파, 성령파, 신유파 이런 이름들은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자아내게

한다. 그 결과로 불행한 양자택일이 생기는데 한편으로는 기성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돌리지 않으려 하고 신앙을 지적·전통적·제도적인 것이 되게 하려는 위험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급증하는 오순절파 운동으로 거기에는 성령의 실존을 감정적·개인적·방종적인 것에서 찾고 있다.

양자는 서로 상대편의 부족과 실수는 보면서도 자신의 부족과 실수는 보지 않으려는 좋은 구실을 삼고 있다.

벌코프는 오순절파와 많은 부흥사들이 개혁주의에서 중생을 칭의와 성화의 두 면만 가졌다고 하는 전통적 분석에 도전하고 있다고 한다. 오순절파에서는 그 반면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제 3의 면을 말한다. 그는 아마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 5. 성령 세례관

오순절파의 전통적 견해와 개혁주의 전통 사이에는 기본적인 성경-신학적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세례’(Baptism in the Holy Spirit)이다.

오순절 신학에서는 성령 세례의 경험이 기독교 신자 됨의 결과이며 특징적인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사고에 의하면 기독교 신자들에게 두 가지 성령 세례, 즉 첫 번째는 세례를 받을 때, 두 번째는 영구적·개인적 성령 충만한 내재적 유익을 받아서 기독교 봉사, 특히 복음 전도 등에 영적 은사로 구비되는 은사를 받을 때의 두 가지 세례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F. D. Brun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p. 14; Anthony Hoekema, Holy Spirit Baptism, p. 30 참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성령의 세례’(Baptism in the Holy Spirit)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더우기 오순절파에서의 ‘성령의 세례’ 사상은 성경적이고 설혹 여자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사

상만은 성경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상 또는 교리는 성령에 대한 신약의 교훈과는 무관하다고 대답한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항상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야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직 한 세례만 있는 것이다(엡 4:5). 그리고 신자가 되는 데 입증될 만한 성령의 은사도 하나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로마 가톨릭이나 에피스코파티안, 루터파, 감리교와 심지어 장로교에서도 많은 오순절파 또는 카리스마에 속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장로교 카리스마 주장자들의 수가 많아져서 적지 않은 단체와 출판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해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것은 본질과 역사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오해하는 데 그 근본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결과와 오순절파들의 진영에서 성령의 역사의 본질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보면 아주 좁고 편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믿기를 성령은 오직 홀연히, 그리고 극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급격한 회심, 즉석적인 신자의 완성, 이적적인 병고침 또는 무아지경인 발성 등이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데 성령의 역사의 다양성과 범위에 일치되지 않는다.

창조와 보존, 이성과 양심, 중생과 성화, 교회와 선교를 통한 성령의 역사, 문화와 역사 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종종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조용하게, 단체적으로, 우주적으로 역사하심이 극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역사하심과 다를 바가 없다.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성령을 결한다고 비판하기 전에 누구나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들(갈 5:22, 23)을 제외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강조할 것이 아니다. (고전 12:28-31; 롬 12:6-8)

오순절파측에서는 개인적·자발적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두려 하고 전통주의들은 성령의 계속적·집합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성령론에 대한 견해인 것 같다. 이 견해는 커 박사(John Stevens Kerr, the Five Hoses Anew: A look at the new pentecostalism, 1974년)가 가지는 견해이다.

또는 성경적 용어로서 상반된 대조를 표현한다면 오순절파나 카리스마 주장자들은 성령으로 주어진 자유에 열중하고(고후 3:17)있는 반면에 장로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질서를 주장하고 있다(고전 14:10,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위의 두 가지는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종종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카리스마주의자들이나 경건주의자들에 대한 개혁주의자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자신들의 규범으로 삼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지적하기를, 우리의 규범이나 권위는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침례 교인들, 웨슬레파들과 오순절파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당신들은 그와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을 가진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다, 그리고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흔히 성령의 기쁨과 자유를 실감있게 경험하는 것이 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오히려 성령의 역사에 다른 면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양편에서 교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워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는 그의 「성령의 역사」의 결론에 가서 다음과같이 입증하는 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사는 일은 너무도 미약하다. 오직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만 구속의 대업에 성령이 우연히 참가된 듯한 느낌을 종종 가지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같이 고대의 기도 "창조주 성령이여, 어서 오



시움소서”(Veni Creator spiritus)를 계속 되풀이해야 할 것이다.

## 결론

요즘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승리적 신앙 생활에 절대 필요한 것으로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진 않는다.

즉 신자가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갖기 전에 어떤 개종 경험을 또 다시 가져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성령께서 모든 중생된 자에게 임하며 거하심이 사실이면 신자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개종 경험으로 임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더 완전히 맡기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13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된 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바울은 여기서 ‘성령 세례’를 하나님의 주관적 행동에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성령 세례를 바로 중생과 동일시한 것으로 참 신자라면 성령 세례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든 신자가 언제나 완전히 성령께 자신의 생을 맡기기란 쉽지 않다. 성령을 근심케 할 가능성이 있으며(엡 4:30), 심지어는 소멸케 할 가능성도 있음(살전 5:19)을 배제할 수는 없다. 바울도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8:9에는 신자에게 성령이 거한다고 하면서 13절에는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14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모든 신자는 성령으로 세

례를 받았으나 육신에 속한 자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는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여 성령으로 살 수 있는 동시에 성령으로 완전히 살고 있지 않음도 시사하였다. 에베소서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신자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기도 한다.

이제 말을 맺어 보겠다. 우리는 신자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에 성령을 받았으나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험하고 있다.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성령을 근심케 하며 교만과 분쟁, 미움을 낼 수 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다시 개종시에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도로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개종 후 성령 세례를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실히 성령으로 충만케 됨을 구해야 할 것이다.